



- 특집 / 감사편지
- 멕시코 단기선교
- 교육부 / EM 소식
- 간증 / 기고



추수감사주일 예배 후 EM성도들이 정성들여 마련한 도시락을 나누고 있다. <사진: 양영 기자>

## 1천여개 도시락 ‘정성 듬뿍, 감사 듬뿍’



### ■ EM 추수감사주일 오찬 대접

2021년 추수감사주일은 EM 멤버들이 크게 헌신하신 날이었다. 일주일 전부터 리더를 중심으로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서 예쁜 도시락에 담고 싸빙을 하는 일까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수고하신 뜻깊은 날이었다. 게다가 각각 도네이션을 통하여서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면서 주안예교회 EM

역사를 새롭게 쓴 날로 기억될 듯 싶다. 벨리채플의 교우들은 물론이고 OC 채플까지 직접 내려가서 싸빙을 하였으며, 우리 교우 이외에도 이웃하고 있는 미국 교회의 교인들에게까지 정성스레 마련한 BBQ 를 대접했다.

늘 받기만 하는 위치를 넘어서서 이제는 섬기는 EM 으로 발돋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을거라 확신한다.

<관계기사: 9면> | 오희경 기자 |

■ OC 채플 주안에만남

## 팬데믹 기간에 찾아온 새가족 더 기쁘고 소중

11월 7일 예배 후에 OC채플 주안에만남이 있었습니다.

MP채플에서 가졌던 주안에만남 이후 우리는 모든 일상을 잃어버린 것 같이 정지되었다가 이런 자리가 마련 된다는 기쁨이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께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친목을 쌓는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새가족들에서 준비한 비프스테이크 정식을 맛있게 먹고 주안에만남 비전과 목회 철학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7명을 얹혀 놓고도 70명 아니 700명 새신자를 위한 모임처럼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시고 지난 8년 반의 예를 들어가며 목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어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걸어왔던, 개척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함께 걸어온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들려 주셨습니다.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경청하며 주안에만남의 일원이 된 것이 감사하고, 흥분되며 행복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주안에만남이 끝나면 곧바로 한국 신학교와 신학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의차 출국 하

셔야 하기에 오늘은 많이 말씀 드릴 수 없으니 다음번 주안에만남에도 살짝 참석해서 다시 들으셔도 된다고 여운을 남겨주셨으며 기념 촬영을 끝으로 주안에만남 행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이예스더 기자 |

■ 담임목사 목회 동정



최혁 담임목사는 12월 12일~15일까지 뉴욕퀸즈한인교회에서 열리는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주최 미스바 회개운동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한다.

■ 하나님께 보내는 감사편지



### 한 글자 한 글자 진솔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네 삶에는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세기에 한번 있을지 모를 아주 특별한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 평소에는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이 감사가 되어버린 이야기들이 궁금하기도 했고, 진심을 담아서 각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려하는 의미로 “감사의 편지쓰기” 이벤트를 마련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풍성한 감사의 이야기들에 공감하는 여유가 소중했고, 고사리 손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간 IC Kidz 와 ICY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와 그 순수함에 또한번 감탄했다. 모두 170여명의 편지가 도착을 했으나 지면의 제한에 따라서 모두 실어 드리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빠짐없이 기록이 되었을거라는 위로를 드러본다. | 오희경 기자 |

■ 멕시코 단기선교

## ‘비즈까이노’ 에 예수님의 사랑 · 복음의 씨앗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1년반 동안 움츠려 있던 주안예교회의 멕시코 선교사역이 다시 활기 차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14일 멕시코 선교팀(팀장: 윤종화 장로)이 5박6일간 기존의 루디 로페즈 목사님이 사역하는 산비센테에서 남쪽으로 10시간 더 내려간 비즈까이노 지역에서 전도와 봉사 활동을 펼쳐 많은 열매를 거두고 돌아왔다.

이번 단기선교에는 윤종화 팀장을 비롯해 김현권 목사, 이해구, 김준역, 전호선, 김영기, 김경배 장로와, 이복희, 윤숙자, 김영희 권사, 문성훈, 홍영표 집사 등 12명이 참여했다. 대부분 멕시코 선교에 경험이 많고 분야별 다재 다능한 팀원으로 구성되어 준비기간을 통해서 익숙해진 역할을 분담해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다.

이른 새벽 농장으로 향하는 고단한 노동자들에게 커피와 라면을 대접하고 작은 선물과 전도지를 전해 준 후, 직접 감포 (농장)를 찾아 다니며 다양한



사역을 펼쳤다.

수줍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소박한 한끼와 작은 선물이 삶의 무게에 지친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될지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디오스 페 아

마” 스쳐가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 씨앗을 뿌리고 돌아서야 했다. <멕시코 단기선교 보고 4, 5면> | 홍영표 안수집사 |



## 동남아 · 중남미 등 4개국 선교사 새로 지원

### ■ 해외선교사 지원 확대

주안예교회 당회는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4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선진 선교사는 애양원생산교회 출신으로 15년째 동남아 C국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국제해베스트센터를 통한 교육 지원 사역과 현지교회 사역을 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교회개혁과 목회자 지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에서 8년째 사역중인 이세정(이경희) 선교사 부부는 시카고에서 36

년간 이민생활을 한 미주한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마친 후 현지에서 고아들을 모아 교육과 구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필우(이진경) 선교사는 2017년 니카라과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들을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오지에 거주하는 인디안 부족에게 구제와 복음사역도 함께 하고 있다.

새해부터 새롭게 중동 사역을 준비 중인 최용근 선교사는 1997년 이후 E국에서 고아원과 기술학교를 통해 교육과 복음을 전하고, 현지교회들과 협력 무슬림에서 기독교

교로 개종한 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던 중 지난해 추방 당한 후, 한국 안산지역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한국어교육과 개인전도를 해 오고 있다.

선교사들에게 후원교회는 단지 물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 뒤에 기도로 돕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과 격려가 된다. 매일 새벽기도 시간 기존의 멕시코 루디 로페즈 목사, 아프리카 세네갈의 김승주, 노급석 최영주 선교사 외 4곳의 선교사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 후원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 조용대 기자 |

## 가난한 동심 · 순진한 눈망울에 가슴 울컥



### ■ 멕시코 선교 보고/ 홍영표 안수집사

#### 첫째날(11월 14일)

주일 1부예배 후 주차장에서 장로님들의 전송 기도로 성령충만의 갑옷을 입고 교회 밴2대(1,6호)에 나눠 탄 선교팀은 첫 기착지인 ‘산 비센테’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출발 전 멕시코에 거주하는 성도님으로부터 티화나 국경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동쪽에 위치한 ‘테까테’에서 국경을 통과하기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넘어 2~3시간씩 세관에 잡혀 있어야했던 경험을 갖고있던 장로님들의 긴장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밴 2대에 짐을 가득 싣고온 저희 모두가 초조한 마음으로 국경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 곳에도 계셨습니다. 예상과 달리 간단한 짐 수색후 바로 통과가 허락되었고 비자심사 역시 10분만에 초스피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들 기적이라고 떠들썩 했지만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선교사역에 참가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후 5시반경 루디목사님 집에 도착하여 반갑게 맞이하는 목사님과 인사를 나눈 후 김현권 목사님이 준비해주신 짜장밥으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번 선교사역지인 “비즈카이노”를 향한 새벽 출발을 위해 취침하였습니다. 그사이 문성훈 집사님은 1호차 뒤편에 루디 목사님과 트레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오후 5시반경 루디목사님 집에 도착하여 반갑게 맞이하는 목사님과 인사를 나눈 후 김현권 목사님이 준비해주신 짜장밥으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번 선교사역지인 “비즈카이노”를 향한 새벽 출발을 위해 취침하였습니다. 그사이 문성훈 집사님은 1호차 뒤편에 루디 목사님과 트레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 둘째날(11월 15일)

5:00AM 기상하여 간단한 식사 후 김현권 목사님의 선교일정을 위한 메시지와 기도를 시작으로 바하캘리포니아SUR에 위치한 비즈카이노를 향해 꼬박 하루일정의 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루디목사님 교회 성도 5명이 합류하여 총 18명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참으로 순박하고 순종적이며 4일간의 수입마저 포기한채 선교사역에 동참한 그들로 인해 모든 사역이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번 선교사역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임을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긴 이동시간에 이번 사역팀장이신 윤종화 장로님으로부터 멕시코사역의 시작과 의미, 경험담, 주의할 점, 현장 상황 등등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궁금한 점을 묻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승한 세분의 권사님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아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는 교제의 기쁨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30년쯤 뒤로 돌아간 것같은 낯선 곳의 풍경을 감상하며 모두에게 결코 지루할 수 없는 10여시간의 이동 끝에 비즈카이노 선교센터인 “갈보리 채플”에 도착했습니다.

그 곳 담임목사인 “페르난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눈 후 집을 모두 풀고 채플에 모여 내일 새벽사역에 대한 지침을 들은 뒤 권사님들이 번개처럼 준비해 주신 저녁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 셋째날(11월 16일)

3:30AM 기상, 계획이 변경되어 버스정류장이 아닌 “엘 까라 폴”갭포로 직접 들어가 그 곳 노동자들이 출근할 때를 맞춰 컵라면, 커피, 준비한 선물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후 외부인들의 입장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페르난도목사님의 설명과 부탁으로 허가 받았다고 합니다.

새벽 4시30분 그들의 숙소인 갭포 입구에서 출근버스를 기다리는 2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컵라면 포장을 벗기고 물을 붓고 한편에서는 준비한 선물을 전도지와 함께 나누고 모두가 정신없이 손을 분주히 놀릴 때 사역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할 저도 본연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노동자들에게 다가 “디오스 페아마(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특별히 입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엘 까라 폴”갭포 내에 위치한 Day Care Center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약 70여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 갭포는 규모도 크면서 비교적 잘 관리되는 곳 중에 하나라는 설명을 뒤에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솜사탕과 빙수의 신기한 모습에 모두들 들뜬 표정의 아이들을 보며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넘어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않는 하나님을 제발 만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곳에서의 특별사역은 김목사님의 머리끄าะ주기였습니다.

4:30PM 저녁사역을 위해 다시 “엘 까라 폴”갭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종합셋트로 옥수수칩을 곁들인 칠리 핫도그, 레모네이드음료, 쌀붕지, 콩붕지, 불펜, 노트, 색

## 작은 섬김 · 기도하는 마음 ‘디오스 떼 아마!’

연필, 마스크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는 의약품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들과 자녀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자인 페르난도 목사님의 설교 후 만들어진 두개의 긴 줄로 인해 다시 분주해진 팀원들은 어둠이 질게 내릴 때까지 설 틈없이 묵묵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미소속에 가득 담아 내미는 모든 손에 준비해간 물건들을 건넸습니다.

이 곳에서 이루어진 사역중에 가장 늦게까지 줄이 끊어지지 않았던 사역은 의약품 전달이었습니다. 어떤 약들이 이들에게 필요한지 경험이 풍부한 이복희권사님의 해안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라고 말해야 할까? 순식간에 그 많은 약들이 절실히 필요했던 노동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약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없이 살아가고있는 노동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봅니다.

### 넷째날(11월 17일)

4:00AM 기상. 오늘 새벽사역은 “사빠타”지역입니다. 어제와 같은 사역이 반복으로 진행되어 모두가 익숙한 솜씨로 각자의 위치에서 순식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일터로 나가는 그들에게 라면과 커피를 쥐어주며 ‘디오스 떼 아마’를 외쳤습니다.

점심사역은 근처에 있는 Vizcaino Daycare Center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칠리 핫도그와 레모네이드 그리고 솜사탕이 전부였지만 약 50여 명의 수줍은 눈동자들은 한결같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창문이 없는 어두컴컴한 방에서도 질서있게 줄 서고 조용히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온갖 풍요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는 커녕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시기, 질투, 원망으로 가득찬 우리들의 자화상을 떠올려보며 자그마한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순수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통해 천국이 이들에게도 임할 것을 보게 하신 주님앞에 한편으론 회개와 한편으로는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사역은 어제보다 더 큰 “감포 오초”에서 진행된다는 것과 예상보다 많은 수(약600명)를 섬겨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추가로 핫도그와 빵을 현지에서 구매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특별 입장허가를 받고 아이들 놀이터 옆에 부스를 차렸습니다. 이번 선교사역의 마지막 섬김을 앞두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섬긴다는 각오와 익숙한 솜씨로 준비된 부스 앞에서 페르난도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이 전해지고 이어서 4개의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솜사탕, 빙수, 핫도그, 의약품 앞에 각각 만들어진 줄은 2시간 동안 준비한 재료가 바닥이 날 때까지 끊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윤숙자권사님의 인도로 짬을 내어 감포안으로 들어가 노동자들의 숙소를 직접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웬지 못볼 것을 볼 것 같은 야릇한 분위기에서 용감한(?) 윤 권사님과 함께 안으로 향하여 들여다 본 숙소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란 말 밖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둘러보자는 권사님의 권유에

도 사진 몇장을 찍는 동안 마는동 그 곳을 뛰쳐나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삶에 대한 그 어떤 불평도 불만도 하지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리라, 내게 베푸신 아주 작아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가 있던 곳 한 편에 이번 선교사역을 안내한 페르난도목사님이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갈보리교회”가 있습니다. 선교 마지막날 수요일 저녁예배를 50여명의 현지성도들과 함께 드리기로 했는데 이 예배 때 김현권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면 라우라 사모님이 스페인어로 통역하기로 갑자기 전날 결정되었습니다.

거리가 먼 관계로 아무도 관심갖지않던 이 지역에 선교팀이 방문해준데 대한 감사와 마침 선교팀에 목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기 힘들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되는 것은 인종과 지역과 언어가 다르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에 처음 참가한 저는 주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라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첫발을 때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단기선교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 할렐루야 나잇



언니 · 오빠들이 찾아와 신나는 게임 · 선물도 한 가방

2021년 10월 31일 주일 늦은 오후, 벨리채플과 OC채플 교육부 자녀들이 채플 앞마당에서 할렐루야 나잇으로 모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해에는 같이 모이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열린 2021년 할렐루야 나잇은 양 채플 모두 ICY, EM, 코람데오 공동체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교육부 선생님들, 교육부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준비했고 15가지 이상의 게임을 준비했다.

교육부 아이들은 이 날 농구 공 던지기, Football Challenge, 세발 자전거 경주, Fishing Game, Giant Jenga, Golf Putting 등 여러가지 게임과 Face Painting 등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게임을 할 때마다 구디백에 사탕, 초코렛 등을 잔뜩 받아 기쁨이 더해지기도 했고 부모님들과 사진을 찍기도 하며 오랜만에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벨리 채플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이 앞

마당에 캐노피와 조명을 설치해주시기도 했고, 양 채플 모두 장로님들과 형, 오빠들이 게임을 조립해주시기도 했고, 벨리 교육부 스태프 권사님, 집사님들은 OC채플 가족들과 봉사자들에게까지 치킨 덮밥 도시락을 만들어 섬겨주셨다. 이번 할렐루야 나잇은 가장 여리고 연약한 어린 지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임을 보여준 산 증거였다.

| 이정미 전도사 |



■ 추수감사주일 예배

2021년 11월 21일은 온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 주일에 과워(3-5학년), 나우(K2학년), 조이(3.5세-Pre K) 그룹이 함께 모여 교육부 연합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는 벨리채플에서 30여명의 교육부 아이들이 모였고, OC 채플에서는 15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가을 분위기 물씬 나게 장식된 예배실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드린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말씀을 배우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과일을 한 개씩 가져와 드렸다. 이날 아이들이 드린 과일들은 예쁜 선물 바구니에 담아 할렐루야 나잇을 섬겨준 ICY, EM, 코람데오 공동체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아직은 받는 것이 익숙한 어린 아이이지만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며 얻어지는 기쁨을 배우는 추수감사절이 되었다.

| 이정미 전도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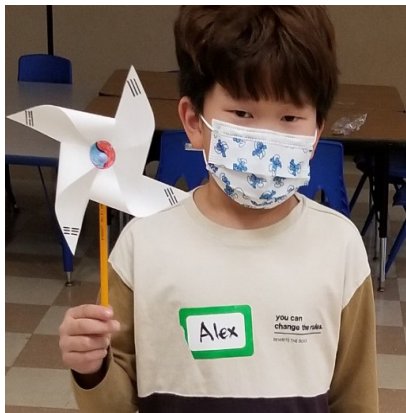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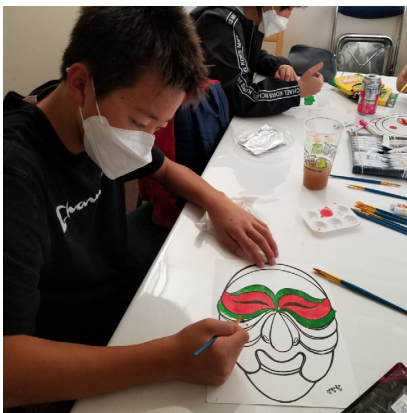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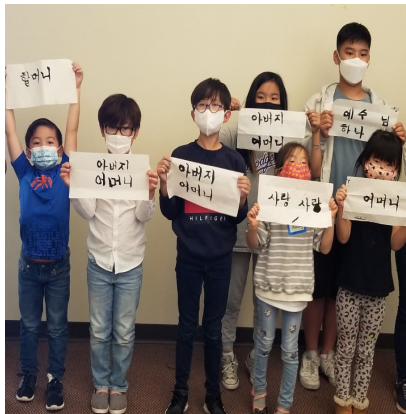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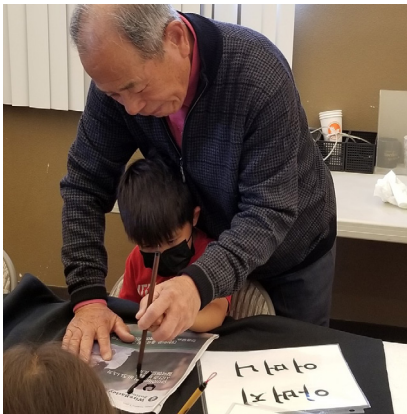
한글학교 소식

교육부 사역자에게



‘가나다라...’ 익히며 고유문화 체험

이번달 한글 학교 특별 활동 시간에는 탈 만들기, 서예 쓰기 (임흥식 집사 자원 봉사), 바람개비/ 가오리 연 만들기(윤석중 집사 자원봉사) 등을 하며 한국의 문화 및 활동을 경험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류명수 기자 |



전도사님 고마워요!

이 해의 끝자락 즈음에 기억 해 내어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다.



김선희 권사

사춘기의 세손자들을 키우는 일은 하나님

이 주신 기업 중에 비교적 hard job 이라고 말 해도 넘치는 표현이라고 반론 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첫째 손자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 할머니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 아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고 사춘기에 자녀들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학생이 된 손자가 아침을 안먹겠다고 학교에 갈 준비를 서두르는데 잠시 후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손자를 차에 태워가셨다. 같이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으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다는 이야기다. 이런 일들이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계속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시발이 되고 있는거라 믿게 되었다.

사실 그 아이는 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거부했었다. 솔직히 이 할머니의 이기적인 결정임을 부정할 수 없는 처지였다. 자신의 친한 친구와 헤어지기 싫어 한참을 시무룩해 있던 시기에 그 아이를 따뜻이 손잡아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하고 밝은 얼굴로 교회가는 날을 기다리는 손자로 바꾸어 주시고 동생들 또한 형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바꾸어 주신 그 전도사님께 이 글을 통해서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나도 젊은 시절 교회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해왔던 교인으로 되돌아 보면 이런 따뜻한 섬김과 사랑으로 그 어린 영혼들을 진정 그리스도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보듬었던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고 싶다. 그 전도사님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목사님으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허락해 달라고.

■ Reflections: The Day After Thanksgiving Day

*The words of Worthy Is The Lamb topped my list of thanks...*

It was the morning of November 15th. I had just opened my eyes to the glistening sun rays coming into the room. I woke up saying to myself and to God, "I'm going to be counting my thanks everyday starting today until Thanksgiving Day." I headed out of the house and found myself stuck in L.A. traffic. So, I decided to begin counting my thanks with the start of a new day. I also thanked God for something I had probably never considered as a topic of thanks for Thanksgiving Day before - the gift of hearts genuinely connecting through open, honest and loving communication. A warm email from a fellow believer and collaborator had made me realize that there is such a satisfaction that comes from having great communication that God deserved to be truly thanked for having given me language. I was about to move on to the next thank you when the title of a song sprang up in my heart. Knowing little about God's plan for what would become a Thanksgiving meal theme this year, I googled the song and played it as background music during my commute from Arcadia to Westchester near LAX. The lyrics went like this: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And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for this love, Lord  
 Thank you for the nail pierced hands  
 Washed me in Your cleansing flow  
 Now all I know  
 Your forgiveness and embrace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

The words "thank you" at the beginning of the song stood out to me, so I replayed the song. The first two lines of the lyrics moved my heart so much that I began putting the voice of my heart to the words as I meditated on each line. I must have repeated the song 10 times by the time I was parked at my destination. This broken record effect didn't end after the commute, though. The lines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kept springing up in my heart like a geyser everyday after, and all day long, even as I was shopping for the thanksgiving meal and looking for inspiration for a centerpiece. I was still looking for that one stunning piece that would make my centerpiece shine when I suddenly thought of a little wooden cross my friend had given me years ago. Voila!! My thanksgiving shopping was complete, and I moved the cross from the display shelf to the center of the table the night before Thanksgiving. The little wooden cross really drove home the lyrics of Worthy Is The Lamb as I began arranging my God-inspired centerpiece. I reflected on how many thanksgiving meals I had previously prepared and how many of those meals Jesus would have felt invited to the table. To remember how God

again, without fail, came through for me, Jane, and Justin throughout this year, I secretly invited Jesus as my guest of honor to our thanksgiving feast by placing a setting on the table. I don't think Justin and Jane noticed because they didn't ask if there would be another person coming. I did play Worthy Is The Lamb as our background music after our relay prayer of thanks ended. It was great to be sharing the song that the Lord had put on my heart as our hands reached for the Honeybaked Ham.

The words of Worthy Is The Lamb topped my list of thanks this year, and the list stopped there. All the rest that I have to thank God for falls under this umbrella of amazing grace of salvation. God reminded me once again that for those who proclaim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anking Jesus for His work on the cross is the greatest reason for celebrating Thanksgiving Day, Christmas, Easter, and all the other special days Christians celebrate. Along with this truth, I am also thankful for the common grace that God the Maker showers upon believers and unbelievers. I am mostly thankful that the words of this song are on my heart this morning even after Thanksgiving Day. What amazing grace that I've been chosen to have these words forever on my heart. THANK YOU FOR YOUR LOVE, LORD!

| Monica Kim |







## *EM Hearts Unite and Serve Thanksgiving Lunch*



From students still in their teens to more mature members in their 60s, EM members washed, sliced, squeezed, fried, mixed, tenderized, marinated, and packaged individual lunches: more than hundred pounds of L. A. galbi for OC and over 700 bowls of bibimbap to be exact. EM became an assembly line of thankful hearts coming together to share their thanks with the body of Christ that ICCC EM calls home.

Laura made sure there would be plenty of containers to pack individual lunches, not to mention Pastor Kim who shopped for the ingredients early Saturday morning after literally having hopped off the van from Mexico Missions Friday evening.

Ernie and Misuk Baker helped with buying ingredients, and Jane K. had no idea she would be slicing, dicing and packing all day long when she arrived from her flight from Boston the night before: "I've never seen so many carrots in my life!" The list of novice and experienced "cooks" whose precious hands prepared every ingredient that filled our stomachs and hearts runs much longer. May God remember you all for loving on His people. Serving the Lord's people with the love of Jesus is what EM does very well!



## *Sending the Gospel to Boys and Girls in Unreached Nations*

ICCC EM took part this year in send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by donating shoeboxes filled with gifts to Operation Christmas Child. These gifts will go to children in some of the unreached places where many are resistant to the gospel. We pray that our gifts will break cultural and religious barriers and deliver the love of Jesus to those who have never heard of the name of Jesus Christ.

■ EM NewComers

*I Can't Help But Say  
"Amen!"*

My family and I moved to The Valley in September 2020 and started attending ICCC in July 2021. I started by attending the second KM service with my parents and it wasn't until recently, in October, I started going out to EM. Regardless, whether I attend a KM or EM, it is certain that the Word of God is being preached at this church.

Sitting in the pews every Sunday and hearing the Word being preached, I can't help, but say "Amen" because what is being said is true, and I believe in that Truth. I simply believe without question. It proves to me that my faith is not by my own doing, but it is a miracle of God - an act of God that I have been chosen to believe His Word is true.

Faith is not just a "thing" and it is not just something to do or to have without reason. The object of faith as Christians is Jesus Christ, therefore, it is in Christ, believers place their faith. As Paul wrote in Romans 10:17, "So then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It is by God's Word people get saved, it is by God's Word, His People learn about His Will, and it is by God's Word, His People learn who His Son, Jesus Christ is. Without the preaching of God's Word, there is no worship; there is no church.

So from the first Sunday my family attended ICCC, I have been encouraged to witness the preaching of God's Word, and I come every Sunday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Word of God will be preached. I am honored and thankful to be able to partake and witness the wonderful work that God is doing at this church.



Alison Kang

*Martin Luther Bowled?*

In ICCC EM's 11/14 sermon titled "Miracles of Jesus: Man with a Shriveled Hand," Pastor Choi asked, "Do you know where bowling came from?" His next line was "Martin Luther." The surprise of many EM members who had enjoyed two hours of fun and fellowship at Winnetka Bowl just a week before was apparent as their gestures showed instant recall of the excitement and thrill that comes from striking down those pins.

As all inquiring minds would have wanted to, I google searched the sentence - Did Martin Luther start bowling? Lo and behold, the search led to a Wikipedia post that said "Protestant Reformation founder Martin Luther set the number of pins (which varied from 3 to 17) at nine. He had a bowling lane built next to his home for his children, sometimes rolling a ball himself." Another post said, "Not only was bowling once part of a religious rite, but long after it developed into a strictly secular game, Martin Luther is said to have determined the number of pins used. ... The



game as we know it today originally played a role in the religious rites held in third- and fourth-century monasteries in Germany."

Who would have imagined Martin Luther had a bowling lane built next to his home! When he was in hiding from the Vatican and emperor of Rome during his efforts for the Protestant Reformation, it is said that Martin Luther yelled "You Devil!" with every roll of the ball. He fought against the real enemy behind the deadly threats against religious reform even as he bowled. Martin Luther's sole focus of "Only God's Word, Only Faith, Only Grace" became a powerful bowling ball speeding down the lane that knocked every single pin down in victory. | Monica Kim |

*Activating The Special Blessings*

God blesses everyone every single day. God desires to give His blessings on those He loves, and He loves all of us. For that reason, He provides for us even when we don't ask for it. God knows what we need. These general blessings or provisions from God for all human beings aren't always apparent to us, and they are usually afforded beyond our recognition such as air, food shelter, health, healing ability, nature, family and friends,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 on naming a few. They are easily taken for granted and not appreciated. Also going through ups and downs, and times of emotional, physical, and spiritual unrest in our lives, sometimes a grateful attitude can be difficult to sustain.

This Thanksgiving season, I thank God for helping me recognize and be thankful for the abundant blessings I have received either as a form of general blessing and special blessing ever since I became a Christian. Gratitude toward these blessings brings qualitative change in my life and spiritual transformation. Acknowledging more the goodness in life and feeling more positive have improved my



Michelle Seo

health physic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and I have become better in dealing with adversity and building strong relationships with people around and God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Miracles of Jesus' sermon series by Pastor Choi during ICCC EM worship, I have a chance to learn how to activate these special blessings by tracing the footsteps of the biblical figures and analyzing the events in the Bible. Like general blessing, these special blessing are given freely not earned by our own work. Yet faith-based actions on our part are required to activate these special blessings since they are meant for God's chosen children. Through these special blessings God wants us to have Him in our lives. This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 loving Heavenly Father and His children. During the last 9 weeks, Pastor Choi explains how small acts of faith initiate God's blessings according to His plan through the 'Miracles of Jesus' sermon series.

■ 코람데오 연말파티

'축복과 사랑의 식탁... 베푸신 손길에 감사'



11월 6일 고기 먹기에 참 좋았던 토요일, LA에 위치한 <몽 夢> BBQ 집에서 코람데오를 섬겨 주시는 귀한 자리가 있었다. 항상 물심양면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영양가 듬뿍 주시는 코람데오 지원 담당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또 한번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위장도 채워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어 마음도 채워주시는 감사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 손 높이 가장 비싼 C 콤보를 외치며 좋은 것 많이 먹으라며 골든벨을 울리신 오찬국 장로님의 멋진 한마디에 이곳 저곳 감사의 환호 소리와 사양하는 손사래 속에 저 멀리서 고기 가득 실은 카트가 입장을 시작했다.

저번 모임에서 조용히 몇십인분의 갈비를 묵묵히 다 구워 주셨던 김현권 목사님의 식사 축복 기도로 시작하여 교회 많은 곳에서 바빠 사역해주시는 배석원 장로님께서 자리를 빛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오승현 목사님의 감독 통솔 하에 고기는 각 테이블로 쉴 새없이 공수 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새 청년 정병욱 형제, 김학준 형제 그리고 황주희 자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 환영하는 자리도 있었으며, 그동안 엄마/이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고 맛난 반찬들로 외로운 식탁을 묵묵히 채워 주셨던 배혜

랑 권사님, 허제니스 권사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오희경 권사님을 소개해 주셨다. 항상 안보이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힘써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 박수치고 감사드렸지만 정말로 다들 맛있다고 코람데오 모두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자리이면서도 이 자리에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선준 형제의 미국에서의 마지막 모임이었기에 많은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다. 미국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 고국으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고 기대하며 기쁘게 희망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음에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손길들을 통해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 인생의 하루 어느 시간을 사랑으로 채웠음에 그리고 입으로 사랑을 채웠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입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바뀌게 하시어 더 큰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저희 곁에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 안세진 성도 |

■ 박익준·구윤희 성도 결혼

축하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연휴로 세상 모든게 풍요롭게만 느껴지던 11월 27일 오전 11시, 주안예교회 벨리채플 예배당에서는 새 출발을 알리는 힘찬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다.

오랜시간을 주안예교회와 함께해 온 코람데오 청년부의 박익준 형제와 구윤희 자매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좋은 계절에 어울리게, 날씨 또한 맑고 포근해서 이들의 앞날을 더욱 축복해 주는듯 했다. 듬직한 신랑과 예쁜 신부가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만 되기를...

| 오희경 기자 |

## '20가지 감사기도'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이제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운전하며 보는 눈부신 햇살이 너무나



최승희 집사

신선함을, 노스릿지 118 FWY가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들의 싱그러움, 나폴거리는 잎사귀에서 윤기가 흐르는것을 보며 다시 한번 교회로 향하는 발길이 진짜 아름답게 느껴지며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 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며 매주 드러지는 예배가 형식적이며 영혼의 생기가 고갈되어 가는 것 같고 말씀을 향한 갈망 또한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은 저의 마음은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기를 갈망함으로 저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최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은혜롭지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듣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깃들어 있고 불타는 마음을 가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느끼며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겪는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했던 생활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제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루 생활중에서 20가지 이상을 감사기도를 드리며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임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대면예배로 예배를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저를 사랑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께, 철모르고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같은 저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이 미국 땅에서부터 저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였고 산산조각이 난 저의 마음, 거기다 오지 않을 미래까지도 가불해서 미리 걱정하곤하는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지요. 내일은 없다, 미래도 없다 하면서 바로 이 순간을 열심히 살자고 안간힘을 썼지만... 산 넘어서 들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산이 보이곤했었지요. 저의 영혼은 풀 한포기 없는 사막과 같았고 돌이 말라버린 샘터와 같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역경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함이 지혜인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저는 그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주야로 찾으며 마음의 안식을 찾곤했지요.

새들은 새처럼 살고, 꽃들은 꽃처럼 사는데, 나는 나처럼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남처럼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나의 평강은 안개처럼 사라지곤 하였지요. 햇빛과 고통이 벗이 되었고 그늘과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며 오직 아버지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도 마음의 갈등은 계속 기차길처럼 이어져 가더군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큰 기적이 우리에게(저뿐만 아니라) 일어났지요. 큰 울림이 되는 최혁 목사님과의 만남은 아버지의 크신 선물이며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의 맺가이며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주시는 말씀이 천국의 예고편처럼 보이며 그 맛을 알아가는 재미에 여념이 없었지요. 하나님을 도구 삼아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제 생활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

관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은 저의 마음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게 되더군요.

그러나 제가 당신을 알아가 고저하는 열정과 비례해서 현실은 비례가 아니될뿐 아니라 애달픔은 그 곪이 더 깊어져 가더군요. 그것은 바로 저의 자녀문제였어요. 공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와 저의 가정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하고 울부짖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아니 미래진행형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가는 재미에 영적인 희열이 깊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문제를 거두어 가지지 않고 숙제를 끊임없이 더 주시더군요.

이제는 그리 아니 하실찌라도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 은혜이고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임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고통 속에 숨어 있는 보물로 아픔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곤 한 것을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 마음의 빛깔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의 절실한 변하지 않는 친구가 되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이 감사라는 두 글자가 저를 감싸고 있음으로 강조하고 싶군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떠날 준비를 하며 배와 그물조차 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섰던 제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싶고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처럼 나의 언어와 생각을 익혀 내 복된 삶의 즙을 짜고 싶군요.

저에게 주어지는 나머지 시간들은 더욱 소중히 아끼고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호호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라고 아뢰어 드리고 싶어요.



김헬렌 권사

## 하나님 앞에서의 참 평안

아버지.. 올해도 정말 감사한 게 많은 한해였습니다. 일 때문에 바빴던 시간도 감사.. 일하느라 지치고 힘든 몸을 쉬게 하신 시간도 감사.. 저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하신 때에 따라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전혜숙 권사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소소하고 작은 기대와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며, 세심하게 돌봐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많은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끊임 없이 걱정, 근심, 염려를 되풀이 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저와의 만남을 기대하신 아버지, 제가 무엇이라고 그 도록 저와의 만남을 기다리셨는지..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한 마음에 가슴 아프도록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아버지를 만난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올해 남편이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받았던 그날, 정말 깜짝 놀랐고,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최고예요.

아버지, 큰아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인 저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큰아들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성경암송 시킬 때 기억나세요? 시키기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말씀 하나라도 암송을 시켜서 암송한 그 한구절의 말씀이 평생 아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이었어요.. 많이 부족했지만 아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려고, 장학금도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성경암송과 장학금을 통해, 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기대와 아버지의 응답이 다를 때에도 한결같이 “아버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똑같은 고백하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통해 매일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꿈이 저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 고난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

40년전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을때 의미를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는 찬송 가사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빠져리게 감동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박종도 장로

암이란 남에게만 발생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경추 골절 및 림프암으로 다가왔습니다.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통보를 처음 받고 너무 황당하고 황당해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아내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믿기지 않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악몽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아내에게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아, 내가 무엇을 아내에게 이 시점에서 해줄 수 있는가? 내 신체 일부를 떼어 치료해 줄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하리라. 그러나 현실은 림프암이라는 것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되니 더욱 나 자신이 밍고 무기력함을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45년을 부족한 나를 위해 헌신하고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나를 위해 내결을 함께해준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니 너무 목이 메이고 그동안 잘 해주지 못했던 나의 경솔함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며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내 탓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가슴 아프고 많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가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때를 써보며 간절하게 기도해보는 것 뿐임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도의 수술을 요구하는 신경 수술전문의의 하나님을 직접 선정해주시고 암을 깨끗히 완치시킬 수있는 혈액 종양 암전문의를 통해 완치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명인에게 수술을 받으려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데 최종 판정받고 바로 다음날 어려운 고난도의 수술을 허락해주신 하나님, 수술의가 수술전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나 너무 고난도의 수술인지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저에게 부탁하는 순간, 우리 온 가족은 난생 처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박사를 통해 완벽하게 아무 문제없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수술후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는 이박사의 말씀을듣고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제 아내와 함께하심을 굳게 믿으니 힘든 항암치료를 잘 마치고 암이 사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완벽한 완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여호와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들 우편에 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굳게 믿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송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겸손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길 원합니다.

##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아이들

저희 부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녔고 한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믿으며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지만 부친의 부도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방황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할 때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공부의 마지막이 단기선교였는데 저희 부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06년도 본교회인 애양원선산교회에서 처음 가는 단기선교로 캄보디아에 와서 프놈펜, 캄땡참, 씨엠피, 캄땡을 다니며 고통과 고난..... 킬링필드의 아픔과 앙코르왓의 우상 숭배를 보게 하시며 저희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아픈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단기선교 사역 중 드라마를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마음으로 이 땅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어린 세 자녀와 뱃속에 5개월 된 막내와 저희가 2007년 5월에 하베스트센터에 협력선교사로 정착하여 현재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선교훈련도 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파송교회도 없이 독립군처럼 열정 하나로 시작하였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늘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15년 동안 날마다 기적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베스트센터 안에는 벤엘

유치원, 벤엘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가 있고 작년에 문을 닫은 엘샤다이 성서대학까지 그리고 각 지역에 세워진 8개의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학교 전체 관리와 직원관리, 8개 교회 중 2곳의 교회를 섬기며, 단기팀 사역과 구제사역과 전도를 돕고 벤엘 유치원 선생님이로 사역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희는 현지인들에게 더 많이 배우며 더 위로를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현지 아이들과 함께 벤엘 초중고교를 다니며 현지인이 되어가며 현지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 단기팀이 와서 사역할 때 통역을 돕고 선교사님들의 통역을 도우며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현지 학교에 학생들이 1000명 정도 되는 곳에서 한국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 뿐이었는데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다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현지 학교를 보내시고 현지어를 잘 하게 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저희를 돌봐주는 파송교회 없이 15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늘 저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독립사역으로 교회 개척과 현지 목회자 지원과 중, 고등부 학생들의 학비를 돕는 장학사역 그리고 주변 지역 섬기기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는 사역 등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사의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 교회 찾아 100리



이현, 이현정 집사

교인이 열댓명 되는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오순도순 믿음생활을 하던중 코로나 사태가 터져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후 목사님

내외분이 타주로 떠나시며 저희의 교회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보며 주일을 지키던 중 아는 분이 주안예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더군요.

그 다음 주일날 온라인으로 주안에 교회 설교말씀을 들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고 고갈되었던 저희의 영적 피폐함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가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에 저희를 다지며,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교회찾기는 없이 매주 은혜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배드릴 때 저희 애도 당연히 학생예배를 잘 드리리라 생각했는데 그저 시간만 때우고 있음을 얼마후 알게되며 큰 충격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염려스러워 샘 리 전도사님에게 전화드렸더니 놀랍게도 며칠후 전도사님께서 학생부 리더들과 함께 저희집을 방문해 주시고 저희와 시간보내시며 저희 애를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감동과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풀리고 저희는 주안예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직접 가본 교회, 직접 들은 말씀은 더욱 뜨거웠고 은혜로웠으며 목사님의 열정과 성도님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품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교회 등록을 마치고 이제는 주안에 교회의 새신자로 매주일 새로운 깨달음과 회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며 예배드립니다.

이제 주일 아침 저희집은 팬데믹전과 사뭇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늦지않게 교회가자'라고 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준비하고 저희를 기다립니다. 주안예교회를 나가며 바뀐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일입니다. 매 주일 저희가족은 100리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저희를 이렇게 이끄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 들으려 주의 품 안으로 갑니다. 주안예교회로 갑니다.

■ 기행문- 나이가가라 폭포/ 나형철 기자

## 50미터 절벽 쏟아지는 물보라 사이 무지개 ‘환상적’

나이가가라 폭포 관광은 계절별로 특징이 있어 각광을 받지만 11월초의 가을철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한다.

먼저 우리는 미국 재향군인의 날에 워싱턴 DC 관광을 마치고 미국 동북부 5개주를 넘나들며 나이가가라 폭포로 가는 버스로 6시간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 고속도로 양편에 꼭 들어선 나무들이 노랗고 붉게 단풍진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드디어 도착한 나이가가라 폭포 관광대에 올라 바라본 풍경은 감동 그 자체였다. 넓게 펼쳐진 폭포수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고 뽀얗게 솟아오르는 물안개의 신비로움, 그리고 그 위에 선명히 나타나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눈을 더욱 즐겁게 하였다. 한편 폭포수가 하나로 모여 흐르는 저 밑 강물 위를 수십마리의 흰 갈매기들이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창조의 오묘하심과 인간을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로 잠시 머리를 숙여 기도를 드렸다. 엄청난 양과 속도의 폭포수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평화롭게 나는 갈매기와 무지개를 통하여 많은 힘과 열정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다



시 감사를 드리니 긴 시간의 버스여행으로 인한 피로가 일순간에 사라짐을 느꼈다.

\* 나이가가라 폭포 - 북미 5대호 중 하나인 이리 호(Lake Erie)의 물이 나이가가라 강을 이루며 흘러오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폭포가 되고 다시 흘러 캐나다의 온타리오 호수로 들어가 대서양 바닷물과 합쳐지게 된다. 빙하기 말인 1만 2천년 전부터 형성된 나이가가라 폭포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아프리카 잠비아의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나이가가라 강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Great Island 섬으로 인해 미국 수로와 캐나다 수로 둘로 갈라져 미국 쪽 American 폭포와 Bridal Veil 폭포를 이루고 캐나다 수로는 Horseshoe 폭포를 이룬다. 1초에 660,000파운드의 물이 떨어지고 최고 높이가 53m, 길이가 790 m 인데 400만 KW의 전력 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연간 1400만명이 관광을 온다고 한다.

### ■ 겨울철 정원관리

## 장미 잔가지 잘라주고 1~2회 약품 뿌려야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나라꽃인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나라꽃이 ‘장미’란 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꽃의 여왕이라 불려지고 기쁠 때나 슬플 때 서로 주고받으며 축하와 위로를 나누는 장미.. 겨울철에 꼭 필요한 가지치기와 휴면기 약품살포를 LA 지역에서는 1월에 실행하는 것이 적합한 시기이다.

#### 1. 겨울철 가지자르기

금년에 자란 가지들 중에 내년엔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가지들만 남기고 잘라주어야 튼튼한 장미 포기들을 만들 수 있다.

- \* 남아있는 잎을 모두 제거 한다.
- \* 죽은 가지와 약한 가지들을 먼



저 자른다.

\* 중앙부위에 있는 가지들을 자른다.

\* 연필 굵기 정도의 건강한 가지 4~5개만 남기고 나머지 자르는데

남은 가지들이 한 군데로 몰리지 않게 잘 선정한다.

- \* 남겨진 가지들을 무릎 높이 정도에서 밖으로 향한 꽃눈 위쪽 1cm 정도 되는 곳을 45도 각도로 자른다.
- \* 자른 가지와 잎을 모두 치운다.

#### 2. 휴면기 약품 살포

장미에 많이 생기는 흰가루병, 노균병, 검은 무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함.

\* 너서리에서 휴면기 스프레이(Dormant Spray) 약품을 구입 물에 타서 분무기로 뿌려 준다.

\* 1월과 2월 2번 뿌려주는 것이 좋음.

\* 가지에 골고루 뿌려주고 가지 밑 흙에도 뿌려 준다. | 나형철 기자 |

■ 음악 칼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 슬픔과 애도의 시간 미국을 단합시키는 '국민 조가'

헨리 8세의 영국 국교회 성립 후 강력한 종교개혁을 기대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는 상황에 이르자 1620년에 와인 운반선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인근의 플리머스로 건너오게 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와 기근과 추위에 떨던 그들에게 원주민은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옥수수를 비롯한 작물의 경작법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칠면조를 내어주며 바다를 건너온 이방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영국인은 자신들의 손으로 첫 옥수수를 수확하게 되었고, 도움을 준 원주민들과 감사의 축제를 지낸 것이 Thanksgiving의 유래이다.

원주민은 영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는 영국인의 종교인 기독교로 개종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 유입이 계속되며 영토가 부족해지자, 영국인들은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을 학살하고 강제로 멀리 내쫓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누대에 걸친 자신들의 고향 땅을 빼앗기고 4000 km에 이르는 길을 걸어서 쫓겨나야 했던 원주민들은 추위와 질병, 배고픔으로 고통받으며 부족원 대다수가 길에서 죽게 된다. '눈물의 길 (Trail of Tears)'로 불리는 이 여정 동안 원주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인에게 배운 Amazing Grace를 부르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한다.

'Amazing Grace'는 영국 국교회 사제였던 존 뉴턴이 과거를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가사를 썼으며, 작곡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존재한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에 종사했었는데 폭풍우를 만난 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으며, 회심하게 된다. 이후 그는 노예의 처우를 대폭 개선했고, 후일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 일부 공헌하게 된다. 노예 무역에서 손을 뗀 그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82세에 세상을 떠날 때

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 곡은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에도 남과 북 모두가 불렀고, 흑인 인권 운동, 베트남전 반대 운동, 9.11 테러 등 역사적 순간마다 불리며 미국인들의 영혼을 달래는 노래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6월 26일에는 백인 인종차별주의자가 흑인교회에 난입하며 발생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임마누엘교회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추도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Amazing Grace를 부르자 5,500여 명의 회중이 따라 부르며 희생자를 애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마다 Thanksgiving에는 약 4,500만 마리의 칠면조가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데, 이 중 두 마리는 대통령의 사면(Turkey pardon)을 받아 도살되지 않고 풀려나게 된다. 링컨, 케네디, 닉슨 대통령 등이 농부들이 증정한 칠면조를 먹지 않고 살려준 것에서 유래한 이 행사는,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조지 HW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9년부터 백악관의 공식 연례행사가 되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한 칠면조 두 마리의 이름은 피터버터와 젤리로 결정되었고, 이 둘은 인디애나 주의 퍼듀 대학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 황성남 집사 |



OC채플 추수감사주일 오찬

'주인애기'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더,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 양영,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